

2018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

호남,
신문에
말을 걸다 4

제6강좌

호남 서예가 열전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수석 큐레이터

이 동 국

『퇴계 이황 서예미학 연구』 『추사체의 형성과정과 성격 고찰』
『서예전시 현황과 새로운 시도』 『禪筆의 성격에 관한 시론』

일 시 4월 3일(화) 저녁 7시

장 소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광주문화재단 다목적홀

주최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문화재단
Gwangju Cultural Foundation

호남서예 흐름과 특질에 대하여

- 소위 '동국진체(東國眞體)' 성격과 전개맥락을 중심으로

이 동 국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수석큐레이터)

- 차 례 -

1. 임진(壬辰) . 병자(丙子) 양란 이후 조선후기 서예(書藝)흐름
- 2.'동국진체'의 정의 - 동국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3. 이서와 윤두서가 창시한 '동국진체'의 성격 - '영자팔법(永字八法)'을 중심으로
4. 윤두서 글씨의 조형특질
5. 이서 윤두서에서 이광사와 정약용 - '동국진체'의 전개와 지역적 분포
6. 결론을 대신하여 - 윤두서 전예연구 과제

1. 임진(壬辰) . 병자(丙子) 양란 이후 조선후기 서예(書藝)흐름

임진(壬辰) . 병자(丙子)양란 이후 조선서예는 대체적으로 사상적인 맥락과 서체적인 맥락에서 크게 서 너 가지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남인(南人)계열의 소위'동국진체(東國眞體)'흐름과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의 소위'양송체(兩宋體)'와 '파평 윤가(尹家)의 글씨, 그리고 새로운 시대 서풍으로서 서체적(書體的)인 측면에서 전서(篆書)와 예서(隸書)가 중국에서 도입되면서 전에 없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한 것도 당시 서예의 특질 중의 하나다.

'동국진체'흐름이 조선중기 일세를 풍미한'석봉체(石峯體)'를 비판하면서'왕법(王法)'의 복고를 새롭게 주도한 흐름이라면 '양송체'는 석봉체를 토대로'안법(顔法)'을 가미한 것이다. 전자가 옥동(玉洞) 이서(李滉,1662~1723)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 1668 ~ 1715) 백하(白下) 윤순(尹淳,1680~1741)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1707 ~1777)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736) 창암(蒼巖) 이삼만(李三晩, 1770 ~ 1847)등이고, 후자는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1606 ~ 1672)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 ~ 1689)과 그 학맥을 이은 사람들이다. 또'파평 윤문(尹門)의 글씨'는 송설체를 왕법으로 재해석한 '청송체(聽松體)'를 자기화 시킨 윤순거(尹舜舉,1596~1668), 윤문거(尹文舉,1606~1672), 윤선거(尹宣舉,1610~1669)와 윤증(尹拯,1629 ~ 1714)등의 서맥이다.

그리고 서체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해(楷)행(行)이나 초서(草書) 중심의 글씨를 벗어나 전

(篆)예(隸)를 새롭게 해석해내면서 17,18세기 조선의 다양한 시대서풍이 전개된 때도 이 시기다. 김상용(金尙容, 1561 ~ 1637) 허목(許穆, 1595 ~ 1682) 김수증(金壽增, 1624~1701)이 1세대라면 이인상(李麟祥, 1710 ~ 1760) 송문흠(宋文欽, 1710 ~ 1752) 이한진(李漢鎭, 1732 ~ 1815) 유한지(兪漢芝, 1760 ~ 1834)는 2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앞선 성과들로 인해 청조(淸朝) 학예계와 직접교통하면서 실학(實學)시대 절정기의 비첩(碑帖)혼용의 학예일치 경지를 '추사체(秋史體)'와 '완당바람'으로 완성해낸 김정희(金正喜, 1786 ~ 1865)의 등장도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 배경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동국진체'의 조형특질과 철학적 배경의 일단을 윤두서와 이서 - 이광사 - 이삼만 정약용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겠다. 또 조선후기 서예를 '동국진체' 맥락에서 논할 때 특히 주목을 요하는 점이 글씨의 지역성(地域性)과 서론(書論)의 본격적인 전개인 만큼 이 점도 유념해서 보겠다. 동국진체의 역사적인 전개 맥락과 함께 공간적인 분포, 특히 서울 경기지역에서 시작되어 왜 전라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근 300여년을 두고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는가하는 점은 여간 흥미롭지 않다. 다시 말하면 윤두서가 해남에 낙향한 시기와 이광사와 정약용의 신지도 강진의 유배시기인 18,19세기 전라도라고 하는 지역의 글씨가 동국진체를 중심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관건이다.

이서 이광사 이삼만 등의 인물에게 발견되는 서론(書論) 저작도 글씨에 대한 이론적인 성찰이 전에 없이 왕성해졌다는 점도 눈여겨 볼 일이다. 이러한 저작들이 작가의 서예 실천과 어떤 일체감을 가지는가를 본격적으로 따져보는 것은 앞으로 과제이지만 본고는 이서와 함께 동국진체의 시발지점에 있는 윤두서 서예의 조형적 특질과 사상적 배경을 보고자 한다.

그간 윤두서의 그림에 대해서는 많은 방면의 연구가 있어왔으나 글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특히 윤두서의 회화에 대해서는 18세기 조선후기 만개한 진경산수화 풍속화 문인화의 개척자나 선구자로 평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윤두서 서예의 성격이나 그 영향관계를 밝힌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2. '동국진체'의 정의 - 동국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를 위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동국진체'라는 용어에 대한 기존 학계의 상반된 시각이다. 윤두서 서예가 이서 윤순 이광사 정약용 이삼만 등을 통해 어떤 영향관계 속에서 형성 전개되었는지를 보자면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간 '동국진체(東國眞體)'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자들 간에 이견이 있어왔다. 조선후기 서예사 전개 맥락에서 사승(師承)관계나 서풍(書風)의 연결고리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동국진체'라는 용어가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최완수가 『간송문화 33』에 게재한 「한국서예사강(韓國書藝史綱)」 논문에서 '동국진체(東國眞體)의 맥락(脈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부터다. 이에 대해 임창순은 『조선중기서예』 도록(예술의전당, 1993) 서문 「조선중기서예전 도록에 부침」에서 '진체(眞體)라는 서체가 없어 이것은 서예용어상 부적절하고,

이서와 윤순이 사승(師承)관계가 아님'을 들어 '동국진체'를 맥락으로 연결하는 것이 말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바 있다. 이런 입장에서 학맥의 원류를 따져보면 실제 기호남인(畿湖南人)으로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학통을 이은 이서와 울곡(栗谷) 이이(李珣, 1536~1584)계통의 서인(西人)학통을 이은 소론(少論)의 윤순이 직접적인 사승관계가 될 수는 없다는 임창순의 지적은 주목을 요한다. 실제 동국진체 맥락에서 늘 인식되어져 왔던 남인인 이서와 윤두서, 소론인 윤순은 당색이나 학맥부터가 다르고 서풍 또한 같은 면이 있는가 하면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서와 윤순이 왕법(王法)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윤순은 그 위에 미불(米芾)을 겸수해서 일가를 이루었다. 윤순의 제자나 영향권에 들어가는 인물로 이광사는 물론 서무수(徐懋修, 1716 ~ ?) 조유흥(曹允亨, 1725~ 1799) 강세황(姜世晃, 1713 ~ 1791)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광사 또한 윤순에게 나아가 공부를 했지만 원교체(圓嶠體)의 본격적인 서풍으로 볼 때 윤순과 차이가 나기도 한다. 특히 이광사는 진당(晉唐) 고법과 그 이후의 역대 명서가 섭렵은 물론 이미 오체(五體)겸수를 주장하며 윤순이 본격적으로 가지 못했던 한예(漢隸)나 진전(秦篆)까지 두루 구사하고 있다. 요컨대 윤두서는 윤순과 학맥도 다르고, 미불과 동기창까지 적극 수용했던 윤순과는 서풍 상으로도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국진체(東國眞體)'라는 말의 유래는 허전(1797~1886)이 이서의 <행장(行狀)>에서 "동국진체는 이서로부터 시작되어 그 후의 윤두서(尹斗緒) 윤순(尹淳) 이광사(李匡師) 등은 모두 그 실마리를 이은 자 들이다."¹⁾ 라고 한 데에서부터 찾아진다. 또 이서의 <행장초(行狀艸)>에도 '동국진체는 이서가 창시하여 윤두서에게 전수했고, 그 이질인 윤순에게 전해졌으며, 다시 윤순의 제자인 이광사로 전해졌다'는 기록은 잘 알려진 바다. 더군다나 윤두서는 당시 학문과 예술교류에 있어 당색에 초연하였음은 여러 증언에서 확인된다. 단적인 예로 남태응의 『청죽화사』에는 "공재는 그 빼어난 예술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자랑하고 아낌이 아주 심하여 남의 요구에 절대로 응하지 않았으나 오직 이사량 이하곤 민용현 같은 이들만이 ... 각기 서너첩을 소장했고 병풍그림도 많았다. 이하곤은 <만마도(萬馬圖)> 족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 세 사람 모두 서인(西人)이었다. 이 때문에 비방이 떴지어 일어남을 스스로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다. 이중 이하곤은 노론(老論)의 핵심인 농암 김창협(李昌協)의 제자였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임창순의 지적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윤순거 윤문거 윤선거와 윤증등의 소론(少論)의 글씨 또한 송시열과 송준길 등의 노론(老論)과 결정적인 지점에 가서는 정치적 입장에서 노소(老少)분당 만큼이나 달라 동시대 서풍의 다양성을 학맥이나 당색일변도로만 짚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같은 책에서 임창순은 '진체(眞體)'라는 용어자체가 어떤 특정서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최완수 또한 같은 논문에서 '동국진체'를 설정함에 있어 동국진체를 해서(楷書)나 초서(草書) 등 특정서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임진(壬辰) 병자(丙子) 양란이후 자의식(自意識)이 팽배한 조선후기의 시대서풍(時代書風)의 특질로 '진정으로 조선 고유색이 녹아난 글씨'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보면 '진체'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는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서법은 대략 세 번 변하였다. 국초(國初)에 촉체(蜀體:松雪體)를 배웠고, 선조 인조 이후로는 석봉체(石峰體)를 배웠으며, 근래에는 진체(晉體:王羲

1) 이광사 김상숙 이삼만 저 김남형 역주,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의 서예비평』 (한국서예협회, 2006) 13쪽.

之體)를 배우고 있다.”²⁾고 한 당시 조구명(趙龜命, 1693 ~ 1737)의 말대로 이서 윤순 이광사 모두가 송설체(松雪體)가 퇴조하고 석봉체가 관각체(館閣體)로 떨어진 조선후기에 왕법(王法)으로의 직접적인 복귀를 통해 새로운 시대서풍을 꽃피운 인물이라는 점에서 보면 더욱더 그렇다. 요컨대 ‘진경(眞景)’이다 ‘진체(眞體)’라고 할 때 ‘진(眞)’이라는 것이 내면의 참됨은 물론 형상까지 사실과 부합되어야 하고, 관념은 물론 현실까지 참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이 시대 글씨나 그림의 이념형이나 실천이 진(眞)임을 동의 한다면 당시 예술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자명해질 것이다.

3. 이서와 윤두서가 창시한 ‘동국진체’의 성격 - ‘영자팔법(永字八法)’을 중심으로

앞서 본대로 허전이 이서의 <행장(行狀)>에서 “동국진체는 이서로부터 시작되어 그 후의 윤두서(尹斗緒) 윤순(尹淳) 이광사(李匡師)등은 모두 그 실마리를 이은 자 들이다.”고 한 바에 비추어 볼 때 이서와 윤두서와의 관계는 서예나 학문교류는 물론 인간관계에 있어 각별함을 알 수 있다. <윤두서행장>을 보자.

“이옥동선생과는 일찍부터 금란(金蘭)의 의(誼)를 맺었다. 서로의 사는 곳이 멀지 않아 매일 서로 만나 종유했다. 서로 만나면 경서(經書)의 뜻을 서로 토론하며 활달한 이야기로 회포를 풀었다. 위로는 천인성명(天人性命)의 근원, 황왕(皇王)과 제백(帝伯)의 도(道), 원회(元會)와 운세(運勢)의 기(紀), 자세한 예악(禮樂)과 도수(度數), 역대의 폐흥(廢興), 인물의 고하(高下), 당세의 사무, 가정 일용의 세미(細微)한 것 까지 서로의 지식을 털어놓아 자세히 분석했다...서로의 허락과 기대가 매우 깊어 다른 사람으로서는 감히 엿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때부터 학문이 날로 광박해지고 지식이 날로 고명해져 무릇 강구하지 못하는 이치가 없었고 해명하지 못하는 실사(實事)가 없게 되었다.”³⁾

고 기록하고 있다. 두 사람이 금란지교(金蘭之交)로 매일 만나 종유했고, 글씨이전에 학문은 물론 일상사 가정사의 세미함까지도 의논했다는 지점은 이미 사우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윤두서 행장>>에는 이서와 공재의 글씨공부 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어려서 글씨를 배웠는데 종왕(鍾王)의 법을 취했다. 또한 당송(唐宋)이하의 여러 명가와 우리나라 제가(諸家)의 법을 모두 시험 삼아 배워 그 장단(長短)을 증험했다. 또한 이옥동선생과 함께 영자팔법(永字八法)을 연구하여 옛사람이 전해주지 않는 뜻을 깊이 체득하여 옛날 연습했던 법을

2) , 「한국서예사강」 『간송문화33』 (간송미술관, 1987) 65쪽 재인용.

3) 윤덕희 저 <윤두서 행장> 『해남윤씨 문헌』 권 16, 이내옥 저 『공재윤두서』 379쪽, 시공사 재인용.

모두 버렸다. 고법(古法)에 얽매이지 않고 일가(一家)의 체(體)를 스스로 완성했다. 크게는 당액(堂額) 병장(屏障)과 작게는 편지 등 콩알 깨알만한 것 까지 닥치는 대로 모두 그 마땅함을 다했다. 이 때문에 세상에서 명필(名筆)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놀라 쳐다보았다.”⁴⁾

여기서 특히 주목해서 볼 대목은 “이옥동선생과 함께 영자팔법(永字八法)을 연구하여 옛사람이 전해주지 않는 뜻을 깊이 체득하여 옛날 연습했던 법을 모두 버렸다. 고법(古法)에 얽매이지 않고 일가(一家)의 체(體)를 스스로 완성했다.”고 한 기록이다. 이서와 함께 창안한 영자팔법이 바로 다른 아닌 당시나 후세사람들이 개혁서풍으로 지칭하는 ‘동국진체’를 말하는 것이다.



잘 알고 있다시피 <<필결>>에 보이는 영자팔법(永字八法)은 해서 쓰기의 기본필법이다. 영(永)이라는 특정 글자의 점획의 용필(用筆)을 논한 것으로 ‘측(側)’은 점이고, ‘늑(勒)’은 가로 획인데 마제(馬蹄)로 시작해서 잠두(蠶頭)로 끝나는 가장 기본 획이면서 어려운 획으로 한 일자[一]다. ‘노(努)’는 세로획이고, ‘적(翟)’은 ‘갈고리’라고도 하는데 세로획의 끝 부분에서 쓰러져 있는 붓이 일어나는 탄력으로 튀어나가는 것이다. ‘책(策)’은 왼쪽으로부터 비스듬히 오른쪽으로 올리는 삐침이다. ‘략(掠)’은 왼쪽 아래로 털어 떼어내는 긴 삐침이고, ‘탁(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운필하는 짧은 삐침이다. ‘책(石策)’은 ‘파임’이라고 하며, 오른쪽 아래로 물결 모양으로 끌어당긴다. 영자팔법은 한자(漢字) 필획의 각 요소를 분석 조합한 것으로 이서와 윤두서는 글씨쓰기의 토대가 되는 영자팔법을 재해석하여 동국진체의 핵심필법과 철학체계로 승화시켜 이론체계로 재구축한 것이다. 즉 역리(易理)로 “옛사람이 전해주지 않는 뜻을 깊이 체득하여 옛날 연습했던 법을 모두 버렸다. 고법(古法)에 얽매이지 않고 일가(一家)의 체(體)를 스스로 완성했다”고 한 그대로다. 기법을 넘어 글씨에 대한 사유의 대전환을 가져온 것이 동국진체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자팔법’은 결국 유신론(留神論)으로 ‘획(劃)에 신채(神采)가 담기게 해야

4) <윤두서 행장> 『해남윤씨 문헌』 권 16, 이내옥 저 『공재윤두서』 379쪽, 시공사 재인용.

한다'는 이론인데 '삼과절필(三過折筆)'과 '은봉법(隱峯法)' 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이서는 " 팔획은 글자의 법칙으로 삼절의 뜻이 항상 획(劃) 가운데 잠재해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⁵⁾거나 "획(劃)은 살아야하고 죽어서는 안 된다. 획마다 신기가 머물러 있어야 하며 이 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획마다 신기가 머무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드시 '삼과절필(三過折筆)'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붓의 봉(鋒)을 속으로 감춰서 써야한다 [은봉법(隱峯法)]...붓의 봉을 감추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글씨의 획들이 위곡(委曲)하면서도 정신(精神)이 깃들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⁶⁾고 갈파하였다.

요컨대 이서와 윤두서의 개혁서풍은 살아있는 필획을 창출하여 서(書)를 정신이 깃든 활물(活物)로 만들려는 서예관에서 나온 이론이다. 두 사람은 주역(周易)원리로 서론(書論)을 풀어내어 우리나라 서예역사상 처음으로 서예이론서인 <필결(筆訣)>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작품으로 실천해내었는데 이것이 바로 동국진체라는 것이다.

앞서 본대로 윤두서는 이서와의 학문 예술은 물론 인간적인 차원의 교류에서 이서 집안의 학예전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서는 윤두서가 학문이나 인격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던 이잠의 동생이자 이익의 형님이다. 이서 집안은 여주이씨로 대대로 명필을 많이 배출한 가문으로 부친인 매산 이하진(李滉, 1501~1570)을 시작으로 조부인 청선공 이지정(李滉, 1501~1570), 증조부인 소릉공 이상의(李滉, 1501~1570)로 거슬러 가면서 필명이 자자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런 가학(家學)의 전통과 교류가 이서와 윤두서를 통해 서예혁신을 이루어내는 토대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동국진체의 성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전술 한 바대로 "이 옥동선생과 함께 영자팔법(永字八法)을 연구하여 옛사람이 전해주지 않는 뜻을 깊이 체득하여 옛날 연습했던 법을 모두 버렸다."는 대목 자체가 혁신(革新)을 넘어 전위성(前衛性)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정자는 당시 17, 18세기 조선서단에서의 동국진체의 성격을 한마디로 '개혁성(改革性)'으로 정리하고 있다.

"동국진체는 이서 윤두서 윤순 이광사를 중심으로 전개된 서예개혁 운동이자 '개혁서예(改革書藝)'의 대명사다. 특히 이서와 이광사가 저술한 <필결>과 <서결>을 토대로 새롭게 구축 창안된 것으로서 서예의 내용과 형식의 합일체다."⁷⁾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서예개혁의 이론적 토대로서 <필결>과 <서결>의 저작을 꼽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문정자는 이서나 이광사가 '중정(中正)'이나 '천기造化(天機造化)의 묘(妙)'의 구현을 중심으로"⁸⁾ 이론과 실천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과 왕법(枉法)의 전형을 토대로 현실개혁을 감행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동국진체의 창시자로서 이서와 윤두서의 사유양상은 '진(眞)'으로 모아진다. 이서는 <<필결>>에서 "역(易)에 이르기를 한번 음(陰)하면 한번 양(陽)한다. 이것을 천지자연(天地自然)의 도(道)라 한다"는 <<주역(周易)>>의 <계사전>을 토대로 응용하고 있다. <영자팔법>의 역리적 해석으로 조선후기 서론을

5) 『필결』 <여인규구중편>

6) 이서 『필결』 <획법>

7) 문정자, 「창암 이삼만 서결 연구」 『창암 이삼만 서예학 연구』 (창암서예학회, 2006) 91쪽.

8) 문정자, 위의 책 111쪽.

혁신시킨 이서와 윤두서의 사유세계가 역리를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여기서 알 수 있다.

역(易)은 변화(變化)다. 변화의 질서 그 자체가 생명(生命)의 창조과정이자 도(道)이고 진(眞)인 것이다. 윤두서의 역리에 바탕을 둔 음양론적 세계인식은 진법(陣法)에서도 드러난다. “대저 진(陣)이라는 것은 강한 적을 막는 것이니 강함만으로는 강함을 막기에는 부족하고 오직 부드러움만이 제어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진(陣)은 지극히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지극히 텅 비어있는 듯하면서도 가득 차 있다...”⁹⁾ 요컨대 강유(剛柔) 허실(虛實)과 같은 상반된 요소를 여하히 상합적으로 운용할 것인가가 진법(陣法)의 관건인데 윤두서의 서(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4. 윤두서 글씨의 조형특질

그렇다면 이런 사유세계를 지니고 있는 윤두서 글씨는 조형적으로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까지 공개된 윤두서의 해서와 행초서는 일반적으로 같은 서풍(書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표작을 통해 그 전체적인 특질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당(唐)나라 대숙륜(戴叔倫, 731~789)이 지은 <달을 맞이하여 원명부에게 답함[對月答袁明府]>라는 칠언율시(七言律詩)를 예를 들어보자.

山下孤城月上遲 산 아래 외로운 성에 달이 어찌 이렇게도 늦게 뜨나요,
相留一醉本無期 서로 머물며 한번 취하려 해도 본래 기약조차 없다오.
明年此夕遊何處 명년 이날 저녁에는 어느 곳에서 놀거나,
縱有清光知對誰 비록 밝은 달빛 있지만 누구와 마주할지 몰라라.

빠른 필속이 특징인 행초서 작품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방필(方筆)보다 원필(圓筆)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필획에 골(骨)을 숨기고 있어 강(強)보다 유(柔)가 두드러지는 것은 윤두서의 글씨뿐만 아니라 이서의 글씨조형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다. 특히 ‘遲’ ‘留’ ‘無’ ‘期’ ‘遊’ ‘何’ ‘處’와 같은 글자의 필획에서는 곡획(曲劃)이 극도로 강조되면서 동국진체의 조형특질로서 윤두서 글씨의 정체성이 두드러진다. 행초서의 특성상 자칫 연면초(連綿艸)로 흐르면서 이완되기 쉬운 필획(筆劃)의 필의(筆意)를 극도로 절제하고 감추면서 작품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가 하면, 글자의 대소(大小)관계를 극단적으로 운용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山’ ‘下’ ‘一’ ‘此’ ‘夕’와 같은 단순한 구조의 글자는 필획을 굵고 강하게 가져가는가하면 ‘孤’ ‘城’ ‘醉’ ‘遊’ 과 같은 복잡한 글씨는 가늘고 길게 경영하고 있다. 반면 ‘月’ ‘上’ ‘本’ ‘明’ ‘年’ ‘夕’ ‘有’와 같은 글자는 극단적으로 작게 구사하고 있다면 ‘孤’ ‘城’ ‘留’ ‘期’ ‘遊’는 크게 경영하고 있다.

요컨대 앞서 <3장>에서 본 대로 ‘한번 음(陰)하면 한번 양(陽)한다’는 천지자연(天地自然)의 도(道)를 서(書)를 통해 실천해내고 있다고 하겠다. 윤두서의 역리에 바탕을 둔 음양론적 세계인식이 진법(陣法)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지극히 텅

9) <<기졸>> <어강 제4장>

비어있는 듯하면서도 가득 차게” 실천하고 있는데 강유(剛柔) 허실(虛實)과 같은 상반된 요소를 상합적(相合的)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5. 이서 윤두서에서 이광사와 정약용

- ‘동국진체’의 전개와 지역적 분포

그런데 동국진체 맥락, 특히 윤두서 글씨의 특징이나 영향관계를 논함에 있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현 시점에서 동국진체에 대한 논의가 이서 윤두서 윤순 이광사라는 맥락에서 도식적으로 이해되어 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동국진체에 대한 유기적인 이해를 위해서 태동배경이나 사승관계의 전개를 지역분포(地域分佈)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 서예사의 전개에 있어서 동국진체맥락은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다층적(多層的)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예컨대 이서를 방불케 구사한 사람은 윤두서뿐만 아니라 이서의 이복동생인 이익(李瀾, 1681~1763)과 남하행(南夏行, 1697~1781), 윤두서의 아들인 윤덕희(尹德熙, 1685~1776)등도 포함된다. 더 나아가서는 시기와 공간을 달리하면서 윤두서의 외증손인 정약용은 물론 유(儒) 불(佛)을 넘어 그와 절친한 교유관계를 형성했던 아암(兒嶽) 혜장선사(蕙藏禪師, 1772~1811)나 이삼만도 포함되고, 강진에서 활동한 다산의 여러 제자들도 충분히 동국진체와 맥락이 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¹⁰⁾

그렇다면 전라도 지역이라는 현실공간에서 이서와 윤두서 이광사 이삼만과 같은 서맥은 어떤 맥락으로 생성 전개되고 있었을까. 잘 알고 있다시피 윤두서는 1693년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남인계열이었고 당쟁의 심화로 벼슬을 포기하고 학문과 시·서·화로 생애를 보냈다. 1712년 이후 만년에는 해남 연동(蓮洞)으로 귀향하여 은거하다가 별세하였다.

이광사는 해남 강진과 지척간인 신지도에 귀양와서 23년간 살다가 유배현장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정약용은 1801년 서학(西學)문제로 장진에서 18년간 유배를 살았다. 특히 정약용은 글씨는 물론 문예로 본다면 이광사와 그 이전의 윤두서 윤덕희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다.¹¹⁾ 정약용은 멀리 이황에서부터 허목(許穆, 1595 ~ 1682) 이익(李瀾)의 학맥을 이은 남인으로 조선후기 실학(實學)을 집대성한 인물이다. 그는 강진으로 귀양을 오기 훨씬 이전인 16세 때(1777) 선배 이가환(李家煥, 1742 ~ 1801)과 자형 이승훈(李承薰, 1756~1801)을 추종하여 이익의 유고를 보고 사숙(私塾)하였던 인물이다. 34세(1795) 금정찰방시절에 성호유고인《가례질서》를 교정 했을 정도로¹²⁾ 학문은 물론 글씨에서 성호나 옥동 집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 온 이후 자신의 학문과 예술의 토대가 되는 텍스트를 모두 외가에서 전수받았다고 할 정도로 윤두서 윤덕희 영향이 지대하였다.

정약용은 또 이광사의 글씨를 두고 <야취첩발(野趣帖跋)>에서 “근세 서가로서 이씨가 독보적이었는데...원교의 세해(細楷)와 행초(行草)는 법도가 있어 정심(精深) 기묘(奇妙)하여

10) 강진군 편, 『다산 정약용선생 유물특별전도록 1,2,3』 (2005,2006,2007) 참조.

11) 예술의전당 강진군 편, 『다산 정약용선생 유물특별전도록3』 (2007) 10,11,12,16,20,21 등 참조.

12) 예술의전당 강진군 편, 『다산 정약용선생 유물특별전도록2』 (2006) 5,9쪽 참조.

좋은 것은 이왕(二王)에 드나들고 비(卑)한 것이라도 이장(二張:장지와 장욱)의 법도를 잃지 않았다... .¹³⁾고 평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약용은 이광사의 글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를 짓고 있기도 하다.

촌아이의 서법은 고생스레 지루하니
 점(點) 획(劃)과 과(戈) 파(波)가 하나같이 기필(奇筆)이라
 일찍이 필원(筆苑)이 신지도에 열렸으니
 아전배 모두가 이광사를 따르누나.¹⁴⁾

여기서 23년간이라는 긴 유배생활 끝에 유배지에 생을 마감한 이광사의 영향력이 당시 신지도에서 얼마나 지대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물인 이광사가 정약용의 강진유배지 이웃 동네인 신지도에서 불과 30여 년 전에 생을 마감하였던 만큼 원교의 영향력이 다산에게 직간접적으로 끼쳤던 것이다. 요컨대 정약용은 생애 마지막을 23년의 귀양살이로 신지도에서 보내면서 원교체를 완성한 이광사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원교체는 해남 대흥사 강진 백련사 영광 불갑사 구례 천은사 부안 내소사 고창 선운사 등 전라도 일대 사찰 현판글씨¹⁵⁾를 휩쓸고 있던 때였고, 해남은 또한 동국진체 1세대라 할 이서와 근 40년을 교유한 윤두서가 세거를 한 곳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어느 사람보다 지대하였다.¹⁶⁾

6. 결론을 대신하여

- 윤두서 전예연구 과제

지금까지 윤두서 서예의 조형특질과 철학적인 배경은 물론 그 영향관계를 '동국진체(東國眞體)' 맥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임진 . 병자 양란 이후 조선서예가 남인중심의 소위 '동국진체' 맥락과 노론의 '양송체'로 전개된 가운데 전자가 개혁성향이 뚜렷한 혁신서풍을 구사하면서 서예이론의 저술과 전라도라는 지역성이 뚜렷이 강조됨을 알았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이서와 함께 동국진체를 창시한 윤두서라고 하는 작가가 그 뿌리가 되고 있었음을 보았다. '동국진체'는 "이옥동선생과 함께 영자팔법(永字八法)을 연구하여 옛사람이 전해주지 않는 뜻을 깊이 체득하여 옛날 연습했던 법을 모두 버렸다. 고법(古法)에 얽매이지 않고 일가(一家)의 체(體)를 스스로 완성했다."고 한대로 단순한 서예기법을 넘어 서예사유의 대 전환을 가져온 것이다. '영자팔법'은 결국 유신론(留神論)으로 획(劃)에 신채(神采)가 담기게 해야 한다는 이론인데 삼과절필(三過折筆)과 은봉법(隱峯法)이

13) , 『여유당전서』 제1집 <시문집> “발야취첩”.

14) 정약용, 위의 책 권4 <시> “탐진촌요이십수”.

15) 원교 이광사 필, 「대웅보전」 「설선당」 「천왕문」 「정와」 「지리산천은사」 「극락보전」 「명부전」 「대웅보전」 「만경루」 「천불전」 「침계루」 「해탈문」 『한국서예사특별전13-원교 이광사전』 (예술의전당, 1994) 86-93쪽.

16) 이동국, 「창암 서예를 어떻게 볼 것인가 - 18,19세기 조선서단에서 창암서예의 위치와 성격」 제 3장 재구성, 『蒼巖 李三晩 書藝學研究』 (창암서예학회, 2007).

끝자다.

요컨대 이서와 윤두서의 개혁서풍은 살아있는 필획을 창출하여 서(書)를 정신이 깃든 활물(活物)로 만들려는 서예관에서 나온 이론임을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주역(周易)원리로 서론(書論)을 풀어내어 우리나라 서예역사상 처음으로 서예이론서인 <<필결(筆訣)>>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작품으로 실천해내었는데 이것이 바로 동국진체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서예개혁의 이론적 토대로서 <<필결>>의 저작인데, 이서가 <<필결>>에서 “역(易)에 이르기를 한번 음(陰)하면 한번 양(陽)한다. 이것을 천지자연(天地自然)의 도(道)라 한다”는 <<주역(周易)>>의 <계사전>을 인용하면서 <영자팔법>을 역리적으로 해석해내고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전라도가 조선후기 한국서예의 전개맥락 한 축을 형성하면서 동국진체의 꽃과 열매를 거둔 지역이 된 데에는 이광사나 정약용과 같은 인물이 윤두서가 닦은 1차적인 토대를 근거로 2차 3차 유배라는 기제로 작용한 결과였던 것이다. 이중 정약용의 예술은 스스로 외가로부터 힘입은 바가 크다고 밝힌 대로 서풍이나 그림 등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문제제기하고 규명한 윤두서 서예의 가치는 지금까지 회화사에서 18세기 조선후기 만개한 진경산수화 풍속화 문인화의 선구로서 평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시작에 불과하다.

하지만 <윤두서행장>에서 “회화(繪畫)에 대해선 공은 조촐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글을 짓고 글씨를 쓰는 여가에 때때로 내키는 대로 그림을 그렸다.”고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윤두서의 글씨에 대한 향후 연구 성과에 따라서는 회화에 못지않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의 과제는“공은 또한 옛 전체(篆體)와 팔분법(八分法)이 근세 이래 더욱 쇠멸하여 족히 볼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공은 진한(秦漢)이래 간행된 금석문자(金石文字)를 많이 수집하여 조용히 연구하고 묵묵히 완상하여 초연히 독자적인 서체(書體)를 체득했다. 붓을 운행(運行)하고 글자를 구성(構成)하는 법은 우리나라의 오랜 더러운 습속을 깨끗이 씻어 버렸다. 아울러 크고 작은 도장(圖章)에 새기는 전체(篆體)는 굵이굵이 묘미를 다했다. 옛 것을 좋아하는 박아(博雅)한 사대부들도 감히 한마디 트집을 잡지 못하고 한 점의 글씨라도 얻으면 고이 간직하여 보물로 삼았다.”고 <윤두서 행장>에서 밝힌 바대로 전예 중심의 금석문자와 전각이 될 것이다.¹⁷⁾(끝)

17) 전예나 전각에 대해서는 퇴계 학통을 이은 미수 허목과 허목을 이은 이육 이만부 부자와의 영향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만부는 허목과 같이 공맹의 수사학적 실천유학을 지향하면서 학문적으로 이익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이삼 이서를 평생지기로 꼽았던 인물이다. 글씨에서도 삼대(三代)문자로의 복고를 추구한 ‘미수전’을 구사하면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바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만부 또한 미수전을 그대로 잇고 있는 점에서 한성시절 윤두서 이삼 이서와의 평생지기로서의 교유는 공재의 전예와 전각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만부는 <<식산선생문집>>의 <윤공재화평>에서 “오늘날에는 눈들이 어두워 도학(道學)에서 곡예(曲藝)에 이르기까지 모두 옛 것에 미치지 못한다. 오늘날의 사람으로 능히 초연해 옛것을 따르는 자는 공재뿐이다. 그림에 나타난 까닭에 의견을 밝힌다.”고 한바 있는데 고전(古典)을 전범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윤두서의 상고적(尙古的) 취향을 높이 평가하였던 것이다.

[강사 소개]

이 동 국

현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수석 큐레이터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서울시 문화재전문위원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유교경전학 석사 / 박사

경북 고령에서 태어났다. 경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서예박물관 큐레이터로 일하면서 서예사 관련 전시회를 수십차례 기획했다. '광복 50주년 기념 애국지사 유묵전' 기획으로 국무총리상(1995)을, '표암 강세황전' 기획으로 월간미술대상 전기기획 분야 장려상(2004)을 받았다.

'동아시아 필묵의 힘'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전' '위창 오세창전' '고려말 조선초의 서예전' '전각 초서의 오늘전' '한국의 명비고탁전' '고승유묵전' 등의 서예전을 기획했다.

『퇴계 이항 서예미학 연구』, 『추사체의 형성과정과 성격 고찰』, 『서예전 시 현황과 새로운 시도』, 『禪筆의 성격에 관한 시론』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 왜 21세기에 서예인가?

“말은 곧 생각이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것이 바로 문자다. 그 문자를 직접적 소재로 해서 예술을 하는 것이 서예다. 에둘러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 올해는 고려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한 지 1000년, 신라 명필 김생(金生·711~791)이 태어난 지 1300주년이다. 우리 역사에 자랑할 만한 게 많다지만 그중 최고는 문자유물일 거다. 광개토경평안호태왕비(廣開土境平安好太王碑),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직지심경(直指心經), 팔만대장경,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등 전부 문자유물, 서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린 서체의 아름다움, 서예에 담긴 당대의 문화를 논해야 한다.” (중앙일보 J스페셜-월요일인터뷰. 2011.6.27. 발췌)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사업이란?

기록문화유산은 그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기억창고 역할을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불조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 의궤,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동의보감, 일성록,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유교책판,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와 지난해에 등록된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 등 총 16종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이며, 아태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많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호남의 기록문화유산은 수많은 전란과 인식의 부재로 심한 훼손과 멸실을 겪으며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과 호남지방문화연구원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2010년부터 호남의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발굴·집대성·콘텐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는 호남문집, 호남지방지, 호남서화, 호남누정현판·금석문, 호남고문서, 호남일기자료, 호남한글고문헌, 호남인물검색시스템 등 총 8개 부문입니다. 조사 연구의 결과물들은 호남기록문화유산 홈페이지(www.memoryhonam.co.kr)와 ‘호남기록문화유산’ 어플리케이션(ios, Android)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남기록문화유산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주 소 : 501-023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 삼호별관 2층

전 화 : 062-234-2727 팩 스 : 062-234-2728

홈페이지 : www.rcef.or.kr 이 메 일 : r-cultural@hanmail.net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4’ 강연자료(비매품)

펴낸이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백수인

펴낸일 : 2018년 4월 3일

※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